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 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진보통합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 신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곽노현
- 제 목 : 곽노현 교육감 면담 요청서
-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 문 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0-6214-3550), hregang@hanmail.net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26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단체입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서둘러야 할 이 때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등등과 같은 엄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두발단속은 물론 생활지도 과정에서 체벌까지 행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교육청 내부의 움직임은 무척이나 더더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홍보 작업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저희 서울본부 소속단체 대표들은 곽노현 교육감님을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0일, 교육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확인되고 저희 본부에서 제안드린 사항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청과 서울본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면담 시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면담 요청 일시 : 3월 21일(수) 또는 22일(목) (빠를수록 좋습니다)

■ **면담 참석 예정자**

(면담 일시에 따라 참석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대표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대표 이병우
- ▶ 어린이책시민연대 변춘희
-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은자 지부장
-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김혜정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권혜진 사무처장
-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

■ **면담 배석 요청**

: 이날 면담 자리에 관련 부서인 책임교육과와 인권교육센터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끝)